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무주군, 향로산 자연휴양림에 편백나무 3000 그루 심어

무주군은 지난 23일 무주읍 오산리 일원 향로산 자연휴양림에서 제73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나무심기, 묘목 분양 등에 함께 했다.

황정수 군수는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힐링 명소로 가꾸기 위한 시간에 함께해줘서 감사하다"라며 "우리 군의 자산을 키우는 이 시간이 일생의 보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휴양림 내에 편백나무 3천 그루(2ha)를 심었으며, 식재 후에는 담당 마을을 돌며 산별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2009년 산림청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돼 3백여 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조성된 곳으로 지난해 완공됐다.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무주군은 지



무주군은 지난 23일 무주읍 오산리 일원 향로산 자연휴양림에서 제73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난해에도 이곳에 치유 및 경관 수종인 편백나무 1,500 그루를 심었다.

26일(10:00~12:00)에는 무주군과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무주군 산림조합이 함께 무주군청 정문

분수대 앞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미니장미와 장미허브, 철쭉, 천당금, 편백, 유실수 등 4,600그루를 1인당 3그루씩 선착순 분양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향 부모님 모습 영상으로 전달

장수군,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호응'

장수군은 장수사랑 가족화사업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은 15명의 영상코디가 관내 어르신들을 방문해 그간의 소소한 일상들과 건강상태 등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자녀 등에게 SNS로 전송해 주는 사업이다.

부모님 동영상을 받아본 자녀들의 안부전화를 유도하고 고향에 홀로 계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은 작년 만족도 조사 결과 98%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은 현재 78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2,600여명의 가족에게 동영상이 전송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업 문의는 장수군 농업정책과 6차산업팀(063-350-5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백운면, 논 타작물 재배 홍보

진안군 백운면은 벼농사를 줄이고 소득이 높은 작물 재배면적을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심으면 재배품목에 따라 지원을 해준다.

군에서 벼 재배면적이 가장 큰 백운면은 '벼농사 줄이고, 소득 올리고'라는 이색 문구를 자체 제작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곳에 게시하는 등 한 농가도 사업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70여 농가(40ha)가 신청한 가운데 인삼이 지원 사업에 포함되고 신청 기간이 다음달 2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공무원 선거준비 결의대회

장수군은 지난 23일 군민회관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준비 실천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결의대회는 소속 공무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선거준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

결의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운동 기회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대회 후에는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이충영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준비업무 및 선거관련금지 안내 등에 대해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시설원예농가 사업장 점검

장수군은 이번달부터 오는 6월까지 수시로 시설원에 농가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 개선방향을 찾는 등 농민들과 소통하는 현장위주의 농정을 펼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은 시설원예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장수군 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소득유망작목육성사업 및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등 6개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체리 왜성대목 시험 재배

장수군은 체리를 왜성대목을 이용해 시험 재배한다.

체리는 국내 소비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산은 생산량이 적어 90%이상을 외국에서 수입(1만3,818톤, 2016년 수입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장수군 체리 재배면적은 아주 작은 규모(1ha 내외)이지만 최근 소비량 증가에 따라 재배에 관심 있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환경에 맞는 품종이나 재배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가

전무하여 농가의 식재를 권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군은 농업기술센터 사과시험장의 비가림 재배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적응 품종선발 및 재배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서정원 소장은 "우리지역에 왜성대목 체리를 도입하면 수타지역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향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 가능 여부를 이번 시험재배를 통해 평가하고 우수 품종을 선별하여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홍보 박차

임시특례 규정 6월 2일 종료

진안군은 지난 23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오는 6월 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 밭,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대상이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면 신청서 접수 후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부서 허가를 득하고 60일 이내에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지목변경 절차를 밟으면 된다.

양성과 허가를 득한 산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5일 이내에 현지 조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반영된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학교·성 폭력 예방 위한 뮤지컬 공연

극단 여인극장, '도전 19벨 춘향이의 첫날밤' 공연

무주군은 지난 23일 무주에체문화관에서 관내 11개교 1천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을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공연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교육지원청과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날 공연은 학생들이 주인공의 강의를 아닌 뮤지컬을 통해 학교폭력과 성폭력, 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느끼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극단 '여인극장'이 청소년기 선택이 가지는 꿈과 미래에 대한 책임과 인생, 생명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도전 19벨 춘향이의 첫날밤'을 공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고등학교 김 모 학생(2학년)은



극단 '여인극장'의 '도전 19벨 춘향이의 첫날밤' 공연 장면

"학교폭력, 성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춤과 노래를 통해 보고 들으니 새롭게 느껴졌다"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 행동을 하나하

나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만큼 친구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건물 없는 도로변 52개소 기초번호판 설치

진안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건물이 없는 도로변 52개소에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기초번호판을 설치했다.

기초번호는 도로 구간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로 부여된다.

건물이 없어 위치파악이 힘든 지역에서 교통사고, 기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119(소방), 112(경찰)등 신고

기관에 기초번호판에 기재된 기초번호를 불러주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번호판 설치를 통해 외곽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 군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